

# 강종만 영광군수, 2023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온힘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최근 이틀 간에 걸쳐 국회를 방문해 여야 국회의원들을 면담하고 현안사업의 당위성 설명과 협조 요청 등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았다.

강종만 군수는 첫째날 지역구 이개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서삼석 의원, 김종민 의원, 윤영덕 의원, 김진호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영호 의원, 유준현 전 기재부장관을 만나 면담 시간을 갖고, 둘째날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찾아가 기추진 중인 지역 현안 사업 중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계속사업과 2023년도 주요 신규 국고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법성항 해상보행교 설치 공사”사업비 25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도 요청했다.

이번에 국회 추가 건의 사업은 6건 89억 원으로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42억) ▲국도77호선 백수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10억) ▲초

소형 e-모빌리티부품 시생산 지원 기반구축(25억)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5억) ▲영광굴비 박물관 건립(6억)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건립(1억) 규모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면담하며 한빛원전 3, 4호기 발전소 장기정지로 인한 군과 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관한 지역 의견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강종만 군수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살고 싶은 영광, 군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영광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군수는 지난 7월 19일과 10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하며 민선8기 시작과 동시에 국고예산 확보에 전념하고 있다. /김진기자

## 화순군-광주시-전남도, 동북댐 관련 협약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동북댐 현안 해소와 시·도간 상생발전을 위해 최근 동북댐에서 광주시, 전남도와 함께 ‘동북댐 수질개선 및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구복규 화순군수,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화순군·광주시·전남도는 ▲화순군 이서면 적벽 초소에서 망향정까지(화순적벽 탐방로 등)는 화순군에서, 그 외 지역은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고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재원은 댐 관리청인 광주광역시가 총사업비 233억 중 210억(90%)을 10년간 분할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 체결로 동북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적벽 탐방로 상시 개방과 광주시의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비 지원이 합의돼 동북댐 관련 50년 묵은 시·도간 갈등 해소와 주민의 자존감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호경기자

그동안 동북댐은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화순군에 소재하고 있고 댐 관리청은 광주광역시에 있어 동북댐 주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제한, 동북댐 관리권으로 마찰이 많았다.

화순군은 ‘동북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권 환원 및 적벽 도척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광주시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2020년 8월 초 집중호우 때 동북댐 하류 침수 피해를 계기로 화순군, 광주시, 전남도가 동북댐 현안 과제 해소를 위해 협의를 시작하면서 ‘동북댐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해 왔다.

이후 지난 7월 28일 광주·전남 상생발전 위원회에서 협력과제의 하나로 화순 동북댐의 낙후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양 시·도가 정비사업 추진이 채택되면서 급물살을 타 안전별 세부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남호경기자

## 김한중 장성군수, 내년도 예산 확보 총력

김한중 장성군수가 최근 이틀에 걸쳐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핵심 국회의원들을 만나 현안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내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 군수는 첫째날 지역구 이개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예결위원장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윤영덕, 김원이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보좌관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신속 추진 ▲청령으로 가는 소나무 가로숲길 조성 지원 ▲장성호 수변 데크길, 출렁다리 설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서 둘째날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만나 노후된 백양사 숙박단지에 쉼터,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백양사 숙박단지 관광자원화 사업’ 국

비 지원을 요청했다. 장성군은 전남도, 질병관리청과 공동협업체를 구성해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신속 설립에 힘쓰고 있다. 이번 국회 방문에서 김한중 군수는 내년 추가 부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가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건의했다.

‘청령으로 가는 소나무 가로숲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과 황룡강을 연결하는 걷기길이다. 전남 대표 꽃강 황룡강과 필암서원, 박수량 백비를 소나무숲길로 이어 관광자원화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총사업비 60억 가운데 30억 0이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장성호를 횡단하는 인도교 설치와 수변 데크길 연장 사업비 500억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유광중기자

## 담양군 담빛영화관 관람객 3만 명 돌파

지난해 문을 연 담양군의 작은영화관, ‘담빛영화관’이 개관 1년 만에 3만 관람객을 돌파했다.

담양군 청소년문화의집 1층에 위치한 담빛영화관은 2D와 3D 입체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최신 영상장비를 갖춰, 전국 동시개봉 최신영화를 상영한다.

현재 지역민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서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과 학생, 군인 등 단체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담빛영화관은 성인 6천원,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18세 이하 청소년 등은 5천원으로 일반영화관에 비해 절반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상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예매는 홈페이지(<https://olcinema.co.kr>) 또는 현장에서 가능하다.

한편 담양군에서는 더 많은 지역민의 영화 관람 및 영화상영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12개 읍·면에 디지털사이니지(홍보디스플레이)를 설치 예정으로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진성기자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은 ‘행복한 공예교육’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도내 복지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공예 교실을 운영해왔다. /나주시 제공

## 나주시천연염색재단 공예교육 프로그램 성료

지난 7~10월 도내 복지시설 15개소 대상 지도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은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해왔던 ‘행복한 공예교육’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밝혔다.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도내 복지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공예 교실을 운영해왔다.

이번 교육은 노년층의 문화 향유뿐만 아니라 60여 명으로 구성된 공예가들의 활동 기회가 됐다. 공예가들은 주 1회에 걸쳐 나주를 비롯한 광양, 순천, 보성, 목포 등

도내 복지시설을 찾아 반려동물 공예, 천연염색 공예, 섬유 공예 등을 지도하며 노후 여가생활의 행복을 전달했다.

임경렬 재단 상임이사는 “공예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과 강사들의 만족도가 높아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내년에도 건전한 노후 여가 문화 보급을 위한 공예교실을 운영해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성택기자

곡성군

한적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 집나가면 '구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곡성여행

2019년 곡성군 사진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